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이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릴
파견대학	ISTC	파견기간	8/30/2019 ~ 5/07/2020
귀국여부	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교 자체가 작고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교환학생도 경영대에 비해 적은 편이라 서로 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ISTC에 한국인이 은근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꽤 있는 편이라 한국인이 별로 없을까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들도 대부분 팀플인데 대부분의 수업이 교환학생들끼리 듣는 게 많아서 팀을 짜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BDI라는 그룹에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같이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 궁금하거나 교환학생들끼리 친해지고 싶다면 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자주 참여하면 좋습니다.
2019-2학기 수업	-Graphic Design for Social Media 수업은 학기 첫 시작에 2일 동안 했던 수업입니다. 포토샵을 가르쳐 주시는 수업인데, 포토샵을 처음 해 본 사람이라면 어렵습니다. 일단 교수님 영어 알아듣기가 어렵고 컴퓨터 자판이 프랑스 자판이라 좀 다릅니다. 수업도 빠르고 어렵지만 2일 동안만 하면 수업이 끝입니다. -Communication & Plans 이 수업은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그런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보단 좀 더 많은 걸 알려 주시는데, 내용도 어렵고 교수님 말씀도 빠르셔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Introduction to Media and Communication 이 수업 교수님은 영어 발음도 좋고 수업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십니다. -French as a Foreign Language는 영어로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기 보다는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를 가르쳐 줍니다. 배우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프랑스어를 못하니깐 수업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Beginners는 거의 다 비슷한 실력이고 시험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ECTS가 무려 4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꼭 들어야 이득인 것 같습니다. - Focus on Europe은 이탈리아 교수님께서 이탈리아 광고를 시대별로 나눠 설명해 주시고 매일 게임처럼 퀴즈를 해서 자연적으로 복습하게 되고 발표를 할 때도 각 나라 광고를 보여주는 발표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계속 교수님만 말씀하시는 수업이라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Crisis Communication은 팀플입니다.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따로 시험도 없고 마지막 수업은 각 나라 음식을 같이 먹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Art Elective는 수업이 없고 그냥 5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갔다가 각자 Art Book을 내면 되는 아주 좋은 수업입니다! 같이 박물관도 갑니다! -Business News는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아주 고생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정말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운이 별로였는지 발표만 4번하고 시험도 3번을 봤습니다..
2020-1학기 수업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Intermediate) French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Intermediate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듣지 마세요. 그 곳은 프랑스어로 생활이 가능하고 자신의 의견을 프랑스어로 아주 잘 말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수업입니다. 전 프랑스어를 못해서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Focus on Africa는 교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는 수업입니다. 수업 내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의 없고 다 주제를 주면 저희가 알아봐야 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뭔가를 말하면 처음 듣는 다는 듯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별로였어요. -English Lectures는 영국인이 수업을 하였고 주제를 정해 얘기하고 글을 쓰면 끝입니다. 정말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Visual Communication은 저번 학기 Crisis Communication과 같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주제는 훨씬 즐겁고 창의적인 주제여서 흥미로웠고

	재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마지막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주 즐거운 수업들이었습니다. -Business News는 다행히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꽤 좋은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Focus on Europe은 좀 더 다른 주제로 이탈리아 광고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각 나라들의 광고와 그 특징 등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하루 종일 수업을 하긴 하지만 며칠간만 수업을 들으면 됐었고 다양한 나라에 대한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험은 따로 없고 발표가 있는데 마음대로 팀을 짤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모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보험이나 CAF 모두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CAF같은 경우는 LivinFrance에서 받을 때 까지 계속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BDI라는 단체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여행, 모임 등을 자주 만들고 추진합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생활도 많이 도와주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들이 아플 때 초반에 다 같이 들었던 건강 보험에 대해 July한테 물어보면 다 정리 해 주시고 주시는 자료를 들고 가면 돈을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절대 주저 말고 July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십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는 8월에 갔다가 3월 말 까지 있었는데, 여름엔 정말 미친 듯이 덥습니다. 특히 기숙사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기 때문에 아마 7월 8월에 가는 학생들은 더워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청 추워집니다. 특히 릴은 북쪽이어서 꽤 오랫동안 추워요. 방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긴 한데 진짜 추울 때 말고는 잘 안틀어주기도 하고, 방이 넓으면 많이 따뜻하지 않아서 전기장판을 추천 드립니다. 아마존에서도 구입 가능하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중고로도 팔고, 가기 전에 블로그에 판다는 글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	사실 제가 있는 기숙사는 학교에서 꽤 먼 거리였고 사람도 많이 없고 바도 많이 없어서 밤늦게 나갈 일이 없어서 밤에 안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혼자라면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인종차별도 심하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돌아다니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위협하는 듯한 인종차별과 소매치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파리만큼은 아니지만 소매치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밤에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저는 AEU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곳이 학교기숙사는 아닌 것 같은 게 기숙사 문제나 CAF문제는 무조건 AEU사무실에서만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EU사무실과 ISTC는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있던 숙소는 Charles Havez로 학교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총 30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설도 괜찮고 까르푸와 이케아가 한 정거장 거리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학교 근처 기숙사는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있었던 곳은 먼 만큼 조용하고 방도 넓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방 치고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방 값이 아주 비싸요) 학교를 다니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수업이 많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 근처에 숙소를 하지 않았어도 전 좋았습니다. CAF도 받을 예정이고 방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학교 근처에서 LivinFrance에서 구할 수 있는 외부 숙소를 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시설도 좋고 가깝고 깨끗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Aeu 건물에 학교식당처럼 저렴한 식당이 있습니다. 맛도 가격도 양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AEU에서 받는 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하는 곳이 하나인데 학생은 아주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식사는 대부분 기숙사에서 해결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요리도 많이 하게 되고 초반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요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배달 음식과 외부 음식점 음식은 비싸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빵도 크고 어떤 빵을 먹어도 맛있어서 음식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한식당이나 Korean market은 없어도 중국인이 하는 아시안 마트는 있습니다. Wazemmes쪽에 있는데 학교 근처라 좋지만 가격대도 좀 있고 라면 종류도 적습니다. 돈을 좀 더 아끼고 싶다면 Roubaix

	Euroteleport 역에서 아주 가까운 큰 아시안 마켓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면 종류도 많고 가끔 불닭볶음면은 큰 봉지를 1+1도 합니다. 채소나 고기도 거기서 사면 싸고 다양한 한국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교통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지하철을 타야 하기 때문에 가자마자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매일 꽤 많은 돈을 교통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교통카드를 만들면 29.50유로를 내면 한 달 내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도 잘 쓸 수 있습니다. 비싸긴 해도 초반에 짐이 많으니 친구들과 같이 우버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90만원 (출국행) 112만원 (귀국행)	돌아올 때 짐 추가 비용 20만원 포함된 가격
Fees	0원	
보험료	68만원 + 학교에서 해주는 집 보험과 의료보험	한국에서 삼성화재에서 '글로벌 케어 보험'을 들고 간 후 학교에서 따로 의료보험, 집 보험을 들어야 함. (삼성화재 말고는 가격 기억이 안남, 그렇게 비싸지 않음)
숙소	60만원	한 달
식비	30만원	한 달
교통비	4만원	한 달
책값	0원	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1	100만원	여행비용
기타2		

합계	900만원	총 사용한 액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은 액수입니다.)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일단 날씨를 생각하면 여름에 가면 손 선풍기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생각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프랑스인이 영어를 못하고 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랑스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CAF 사무실 직원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CAF는 운이 좋으면 딱히 별 일을 하지 않아도 바로 돈이 나오지만 운이 안 좋으면 꽤 오랫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CAF 사무실을 정말 많이 찾아가고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 하지 말고 계속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학교 근처 보건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가서 진료를 받으면 25유를 내야하는데, 의료보험(학교에서 집 보험과 같이 해주는 보험)을 들면 July가 주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병원 같은 곳이 아니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소매치기도 아주 심하기 때문에 가방은 항상 잘 챙겨야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간 것은 물론 공부를 목적으로 간 것은 맞지만 동시에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맞다. 유럽에서 유럽을 이동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겨울 방학처럼 길게 쉬지 않고 잠깐의 Break처럼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자주 금방 갔다 올 수 있었지만 먼 곳은 아무래도 방학처럼 길 게 가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 계획을 모든 학기가 끝나는 5월 이후로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 혼자 있는 것도 모자라 내가 있는 기숙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심지어 그곳은 제대로 된 방역 검사도 해주지 않았다. 한 기숙사에 살면서 생겼는데 전수 검사 같은 건 당연히 해주지 않았고 방역조차 안했다. 심지어 그 학생은 그 다음 주 바로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한다. 난 확진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귀국 행 비행기를 예매했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있는 것조차 불안해서 숙소를 따로 얻어 10일을 머물다가 한국으로 왔다. 물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도 경험이다, 라는 위로를 해보지만 무려 프랑스까지 가서 1년이란 시간동안 있을 수 있는데 여행을 많이 못 가본 게 아주 아쉽다. 하지만 머나먼 외국에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많이 배웠다. 그런 점에선 교환학생을 추천한다. 한 학기는 적응하면 끝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힘들어도 1년 교환학생을 갔던 게 더욱 잘 한 일 같았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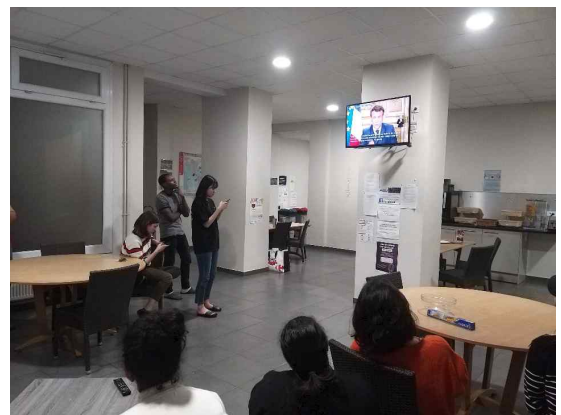
추석에 모인 한국인들 (ISTC는 4명 밖에 없고, 대부분 기숙사 친구들 혹은 처음 보는 친구들)



ISTC를 같이 다니는 중국인 친구들과 독일 여행을 가서 만난 한국 교환학생 친구들.



Art Elective 수업에서 교수님과 학생들과 같이 박물관에 갔던 사진



코로나가 퍼지고 학교 휴교령이 나는 순간 기숙사 친구들이 나와서 주방에서 뉴스를 확인 하 던 모습



코로나로 기숙사 안에서 자가 격리 중 학생들이 답답해서 마당에 자주 나와 있었습니다.	릴에서의 크리스마스
---	------------